



중국 고령화 추이와 시사점

□ 중국 고령화 추이

○ 2015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.2억명으로 총 인구의 약 16.1%를 차지

-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10년 13.3%에서 2015년 16.1%로 증가하였으며, 2050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/3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

그림 1 2006-2050년 중국 60세 이상 노인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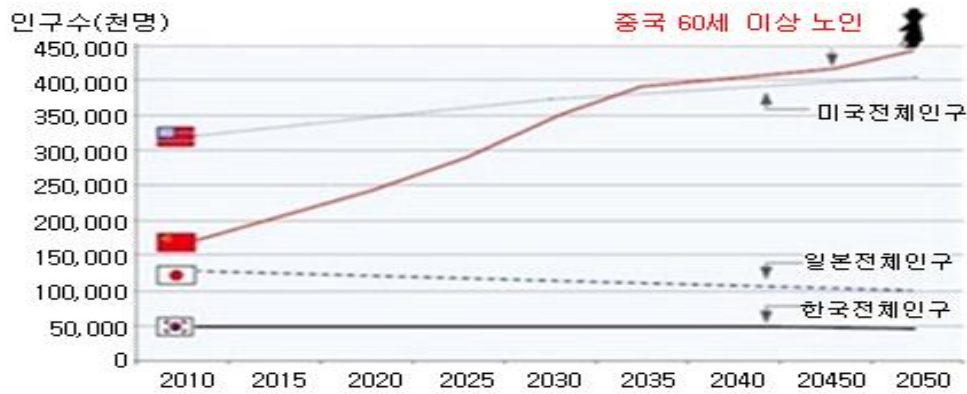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- UN 통계에 따르면,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0년에는 미국 총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정
-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‘미부선로(未富先老)’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.
 - ※ 2012년 중국의 노인인구 비중이 9.4%일 때, 일인당 GDP는 6,076달러

에 머문 반면, 한국은 노인인구 비중이 9.3%(2005년)에 달했을 때, 일인당 GDP가 이미 16,444달러에 달함.

그림 2 노인인구 변화의 국제비교



자료: UN Statistics Division

○ 1950년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.

-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출산장려 정책으로 태어났던 베이비부머들이 60세로 접어들면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음.

※ 건국 이후 중국정부는 국가재건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였으며, 70년대 초반까지 지속하다가 폐지

※ 1950년 5억 4천만 명이던 중국 인구가 1978년 9억 6천만 명으로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1978년 12월 전인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

- 생활수준 및 의료기술의 향상에 따라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세에서 2010년 74.8세로 증가

※ 남성의 기대수명은 72.4세, 여성의 기대수명은 77.4세로 증가

○ UN 인구국에 따르면,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25년 14.0%로 증가하여 ‘고령사회’로, 2035년에는 20.9%로 증가하여 ‘초고령사회’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

- UN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% 이상인 사회를 ‘고령화사회’, 14%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‘고령사회’, 20% 이상을 차지

하는 사회를 ‘초고령사회’로 각각 정의

- 중국 칭화대가 발표한 「중국 노령사회 및 양로보장 발전 보고」에 따르면 중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7년으로 프랑스 115년, 스웨덴 85년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임.

그림 3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



자료: UN Population Division

□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

- 30년간 지속해온 산아제한정책과 급속한 노령화 현상의 영향으로 중국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
 - 중국은 1979년부터 ‘1가구 1자녀’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 중국의 출산율은 1970년 3.3%에서 2013년 1.5%로 감소하였으며 유년기(0~14세) 인구비율도 1982년 33.6%에서 2013년 16.4%로 감소
 - 2015년 기준 16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는 약 9.1억명으로 총 인구의 66.3%를 차지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비 487만명이 감소한 수치임.
※ 2012년 92,198만명 → 2014년 91,583만명 → 2015년 91,096만명
- 노동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국은 루이스 전환점(Lewis Turning Point)에 접어들었으며, 이로 인해 ‘인구보너스 효과’가 소멸되

고 있음.

- 루이스 전환점이란 개발도상국이 일점 시점에 이르러 저임금 노동자가 고갈되면서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
- 중국은 2004년부터 루이스 전환점에 진입하기 시작했고, 임금인상 및 인력난 심화 등에 직면하면서, 중국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왔던 ‘인구보너스 효과’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.

○ 인구보너스 소멸, 루이스 전환점 진입 등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

- 인구부양비가 1%p 상승 시 일인당 GDP 증가율은 0.1%p 하락하는 등 인구 부양비와 경제성장이 밀접한 관계를 보임.
 - ※ 1990년대 50%에 달한 중국 사회의 총부양비가 지속적으로 하향하면서 2010년에 최저수준인 34.9%에 도달
-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- 낮은 인건비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다국적 기업은 인건비가 더 낮은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음.
 - ※ 나이키(NIKE)가 2005년부터 운동화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글로벌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인도, 베트남, 방글라데시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이전하고 있음.

○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산업 구조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- 농촌 잉여노동력이 효율성이 낮은 1차 산업에서 효율성이 높은 2·3차 산업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견인
 - ※ 농업 취업인구 비중이 1950년대 80%이상에서 2012년 33%로 감소
 - ※ 3차 산업으로 지속 유입되는 노동력이 3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, 3차 산업의 노동력 수용능력이 강화되면서 농촌 잉여노동력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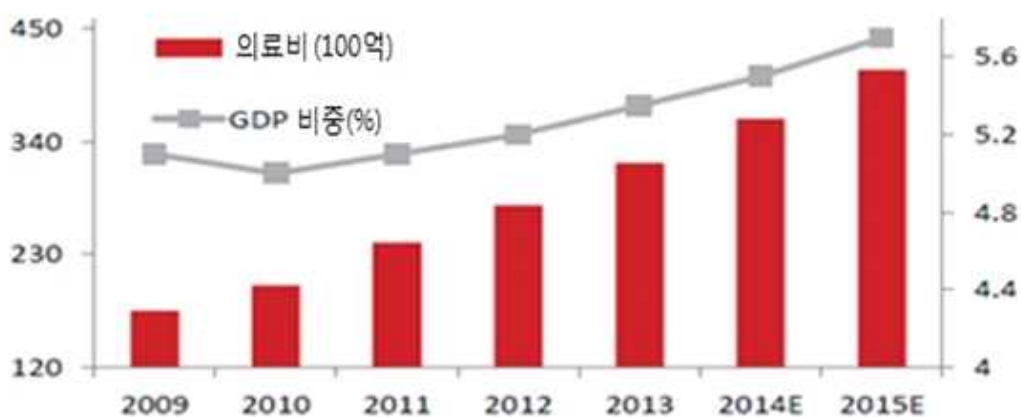
3차 산업 추가 이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형성

- 고령화 현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, 패밀리 서비스, 오락과 같은 3차 산업이 성장할 전망

□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

-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중국 의료·위생 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
 - 2014년 기준 중국의 의료·위생 부문 총 비용은 3조 5,312억 위안으로 전체 GDP에서 5.6%의 비중을 차지
 - GDP 대비 의료·위생 비용의 비중은 1991년 4.1%에서 2014년 5.6%로 WHO 권장수준인 5%에 도달했고, 향후 2020년에는 6.2%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
 - GDP 대비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·위생 비용은 2008년 0.76%에서 2010년 1.11%로 증가하였으며, 2020년에는 약 7%에 달할 전망

그림 4 중국의 의료비용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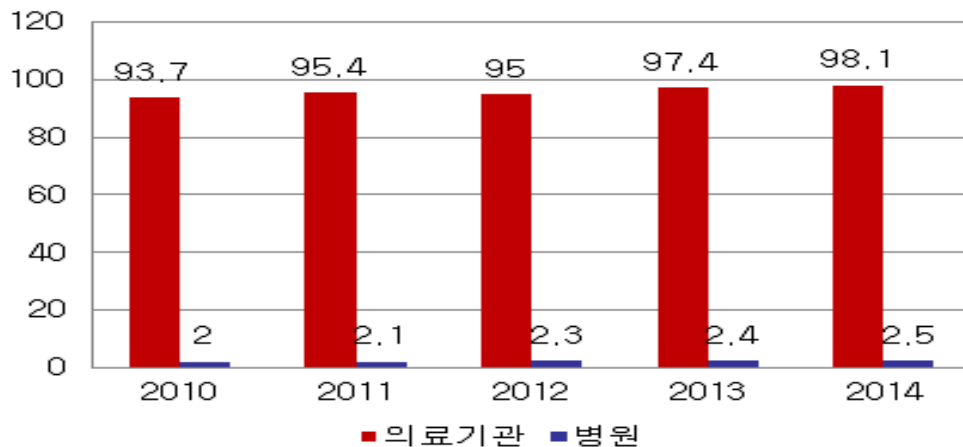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Chinaventure

-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고 부족한 의료 시설을 보충하기 위한 비용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할 전망

- “看病難, 看病貴(진찰이 어렵고, 의료비가 비싼)” 은 중국 의료현황을 설명하는 상징적 단어
 - ※ 의료시설의 절대적 부족 및 환자들의 큰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로 진료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
- 2014년 중국의 의료기관 수는 98.1만개이나 이중 병의원은 2.5만개로 전체의 2.5%에 불과, 나머지는 대부분이 공공진료소 또는 보건소임.

그림 5 중국의 의료기관 수 (단위: 만개)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-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중국은 향후 양로금(養老金) 고갈 상황에 직면할 전망
 -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, 양로금 수급 인구는 증가하게 되면서 양로금 고갈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
 - 2050년에는 양로기금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할 전망
 - ※ 2012년 기준 양로금 수령인구보다 납입인구가 3배정도 많은 수준이나 2050년에는 수령인구가 납입인구와 비슷해져 양로기금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.
 - 고령화로 노후 생활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로보험에 관한 조치가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임.
 - ※ 양로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년 연장방안을 검토

중에 있음.

- ※ 기업연금, 상업양로보험 등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.

□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

- 전국노령공작위원회(全國老齡工作委員會)에 따르면, 중국 노인 인구의 잠재소비력은 2014년 4조 위안에서 2050년 106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 - 노인인구의 잠재소비력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8.3%에서 2050년 33.6%로 증가
 - 50대 시니어세대 인구의 금융상품까지 포함할 경우 잠재소비력은 같은 기간 5조 위안에서 133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그림 6 중국 노인인구 잠재소비력 추정(2010년 가격 기준)



자료: 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(2014), 사회과학원

- 노인인구의 잠재소비력 증가에 따라, 다양한 실버산업 분야의 발전이 기대됨.
 - 중국노령협회는 실버산업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산업으로 정의
 - 중국 정부가 발표한 '중국양로산업규획'에 따르면 중국의 실버산업 관련

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1조 위안을 돌파했으며, 오는 2030년에는 10조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○ 중국의 실버산업은 크게 노인용품, 양로서비스, 양로부동산, 실버금융의 4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, 이 중 실버금융은 외국자본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음.

○ **(노인용품)**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에 대한 관념 변화로 노인용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중국 고령인구 중 기능장애 및 만성병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보건식품, 의약품, 재활보조기구, 의료기기, 간병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

- 노인인구 중 21.9%가 보건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며, 2012년 기준 보건식품 위주의 건강산업 시장규모는 5,600억 위안에 달함.

-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지난 2001년 179억 위안에서 2014년 2556억 위안을 기록하여 약 14배가 증가하였으며, 특히, 혈당측정기, 혈압측정기, 보청기 등의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여짐

○ **(양로서비스)** 가사, 헬스케어, 간병 및 문화·오락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

- 양로서비스 분야는 2016년 3월 개최된 양회(兩會)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등 중국 정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동시에 실버산업 중 발전 속도와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

- 고령인구의 증가와 기능장애 노인의 증가로 간병서비스 및 방문진료,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

- 도시지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 시장 역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.

※ 2013년 「중국 노령산업 발전 보고」에 따르면, 북경시 1인 노인 가구 중 음식배달 및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비중은 각각 44.6%, 56.12%

로 매우 높게 나타남.

- 중국 정부는 ‘관광업 개혁·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서’에서 노인관광을 집중 육성할 관광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선정하는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·오락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

- 2014년 11월, 중국 정부가 양로산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양로서비스기관 설립을 장려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 양로서비스시장이 해외 투자자의 주목을 받기 시작함.

※ 현재 중국 양로서비스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일본계와 미국계 기업이 있으며, 한국, 대만, 독일 등 국가의 양로서비스 관련 기업도 거대한 중국 양로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음.

○ (양로부동산) 은퇴공무원, 기업가, 교수 등 중·고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

-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고소득층 노인 및 여러가지 원인으로 부모를 모실 수 없는 고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증가

-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급 시설을 갖춘 회원제 실버타운 인기

※ 상하이에 위치한 친허위안(親和園)은 기업가의 부모, 교수, 전문직,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비가 최대 98만 위안이며 연회비도 7.4만 위안에 달함.

※ 베이징의 무신귀지양라오위안(暮馨國際敬老園)은 고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에 따라 20만~40만 위안의 가입비와 매월 4,000~5,000위안의 입주비를 받음.

- 부동산기업, 보험사, 국유기업 등이 새로운 투자처로 양로부동산을 주목

※ 완커(萬科), 바오리(保利) 등 주요 부동산개발 기업의 약 30%가 양로부동산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, 현재 약 80여개의 실버타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

※ 2013년 기준 7개 보험사가 양로부동산 분야에 진출하였으며, 실버산업에 투자한 금액규모도 1,000억 위안에 달함.

※ Sinopec(中國石化), Sinohydro(中國水電) 등의 국유기업도 양로부동산에 투자

□ 시사점

- 중국은 선진화 이전에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미증유의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바,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
 -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동인구의 감소 및 부양비율 상승을 동반하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
 - 그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‘인구보너스 효과’에서 벗어나 지식집약형 산업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,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, 외자기업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
- 중국의 고령화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변화 추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선행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
 - 과거 선진국의 경험과 중국의 독특한 사정을 결합해 ‘중국식 고령화 산업과 시장’에 대한 효율적 진출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